■ 막 내린 2023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새봄의 활기 만끽… 관객 개발 과제는 여전

재즈 품은 나흘간의 '금빛 향연'
라이징스타·신예 작곡가 등
젊은 관악인들의 열정 오롯
첫선 보인 재즈콘서트 호응

저조한 객석 점유율 아쉬움
홍보 전략·프로그램 보강 필요

올해 첫선을 보인 2023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이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21일 막을 내렸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공

'봄을 여는 팡파르'를 주제로 올해 첫선을 보인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이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21일 막을 내렸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난 2021년부터 두 번의 시즌(여름과 가을(겨울))으로 나눠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올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2년간 개최해 온 가을(겨울)시즌을 봄으로 옮겨와 두 번의 시즌을 봄, 여름으로 정착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

비교적 '공연 비수기'로 꼽히는 3월, 봄에 열리는 음악제엔 얼마만큼의 관객 저변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사였다.

신고식을 치른 '봄 시즌'은 봄과 어울리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봄 시즌' 안착의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관객 확보를 여전히 과제로 남겼다.

'재즈 콘서트' 콘텐츠를 새롭게 장착한 2023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에선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6명의 연주자들이 선사한 재즈를 품은 금빛 선율로 활기찬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감미롭고 경쾌한 재즈의 매력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곁들여진 제주국제관악제 엔스 린더만 예술감독의 재치 있는 설명은 연주에 대한 관객들의 몰입을 도왔다.

또 지난해 제17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튜바·유포니움 부문 우승자와 오보이스트 강석연 등 라이징스타 및 목관5중주 블래져 앙상블의 무대를 비롯 제2회 제주관악작곡콩쿠르를 통해 세계의 젊은 관악인과 작곡가들의 기량과 열정을 즐길 수 있었다.

다만 무료 개방했음에도 객석의 빈자리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8일과 19일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동시 개최된 공연은 지역에 따라, 출연진에 따라 객석 점유율이 차이를 보였다. 21일 조직위에 따르면 1층(828석)만 개방한 제주아트센터 첫날 관객은 잠정 400~500명, 둘째 날은 90여 명이다. 서귀포예당(1층 총 612석)을 찾은 관객은 첫날 60명, 둘째 날 160명 정도로 파악됐다.

올해 28주년을 맞는 제주국제관악제는 사반세기를 넘겼지만 관객 확보란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운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전략 마련 및 관객 확보 및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프로그램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관 <34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우멩이 골멘, "하르바님, '신식웡이자랑'이 뭐우꽈? 놀레마씀?"
좀녜 골았저, "하르바님, 웡이자랑 말앙 ㄸ난 놀레 또시 시수광? 어떵ᄒᆞ는 것과?"
하르바지 골멘. "오. 그건 영ᄒᆞ메.

(1)웡이자랑 웡이자랑 나 아꼬운 애기 곱들락ᄒᆞᆫ 장미고장 늘 울엉 피어시녜
웡이자랑 웡이자랑 밤새낭 펜히 쉬곡 아침이 창 더레 ᄎᆞᆺ아올 때ᄀᆡᆺ장."
<원제:브람스자장가.독일.1868>

좀녜 골았저, "하르바님, '신식웡이자랑'도 ᄌᆞ미지우다양. 낭중에 또시 ᄒᆞ여줍서."
우멩이 골멘, "하르바님이 웡이자랑 놀레 ᄒᆞ여주난 나 조라운게마씀."

*** 제주어 풀이**

*'신식웡이자랑'이 뭐우꽈? : 새자장가가 뭐에요? *놀레마씀? : 노래에요?
*말다 : <그림>말할이의 의사로 '싫음'의 뜻을 나타냄.
*ㄸ난 놀레 또시 시수광? : 다른 노래가 또 있어요?
*어떵ᄒᆞ는 것과? :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영ᄒᆞ메 : 이렇게 한다.
*아꼬운 애기 : 귀여운 아기 *곱들락ᄒᆞᆫ 장미고장 : 아름다운 장미꽃.
*늘 울엉 피어시녜 : 너를 위해 피었네. *밤새낭 펜히 쉬곡 : 밤새 편히 쉬고.
*창 더레 : 창 앞에. *ᄎᆞᆺ아올 때ᄀᆡᆺ장 : 찾아올 때까지.
*ᄌᆞ미지우다양. : 재미있네요. *낭중에 또시 ᄒᆞ여줍서 : 나중에 다시 해 주세요.
*ᄒᆞ여주난 : 해 주니. *나 조라운게마씀 : 졸려요.

고재만 화백

전국무용제 내년 제주 유치 확정

내년 10월 초 개최 예정… 2005년 이후 18년만

전국 무용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무용제'의 제주 유치가 확정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따르면 (사)대한무용협회로부터 2024년도 제33회 전국무용제 유치 신청을 한 제주의 개최지 선정을 확정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무용단 등이 참가하는 '전국무용제'는 제주에선 지난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번에 재유치가 확정되면서 내년 18년 만에 다시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

제33회 전국무용제는 내년 10월 초 열릴 예정이다.

제주무용협회 최길복 지회장은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며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며 견딘 보람인 듯 해 가슴 벅차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민들과 함께 무용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하게 하며, 모두가 행복한 무용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제32회 전국무용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다. 제주무용협회는 오는 5~6월 올해 전국무용제에 나설 제주대표 무용단 선발을 위한 지역예선을 치를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성산일출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9억원 투입해 리모델링
오는 4월부터 임시휴관

성산일출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9억 원을 투입해 성산일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독서공간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개방적이고 편리한 독서 및 휴식 공간, 만남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해 전통적인 도서관을 탈피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자료실 및 멀티미디어실 확충, 북카페와 동아리실 신설 등이 추진된다.

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4월 3일부터 휴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관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서관 외부에 임시자료실을 마련하고 5월부터 희망도서, 신간도서, 책두레도서 등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책과 함께 머물고 싶은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홍진숙 작가 '여기, 곶자왈'
8월까지 곶자왈생태체험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곶자왈생태체험관에서 홍진숙 작가의 '여기, 곶자왈'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엔 작가가 그려낸 곶자왈의 고사리 스케치를 포함 총 20점의 작품이 내걸렸다.

홍진숙 작가는 "비틀어지고 부러진 나무들과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곶자왈의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곶자왈 작품 활동을 하게 됐다"며 "다양함만큼이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고사리들을 색다른 시선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제주출신인 홍 작가는 제주와 서울, 일본을 오가며 19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은지기자

취 축 CONGRATULATIONS 임

안덕농협조합장 함덕농협조합장 구좌농협조합장 표선농협조합장 서귀포시축협조합장 모슬포수협조합장

이 한 열 (해병 262기)

현 승 종 (본회 부회장 · 해병 314기)

윤 민 (본회 부회장 · 해병 384기)

김 용 우 (해병 491기)

김 용 관 (해병 558기)

문 대 준 (본회 이사 · 해병 608기)

취임을 축하드리며 **"안되면 될때까지" 해병대 정신**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날에 더 큰 영광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 장 **강 대 성** 외 회원 일동